

2024년 06월 27일 (목) - Signal ev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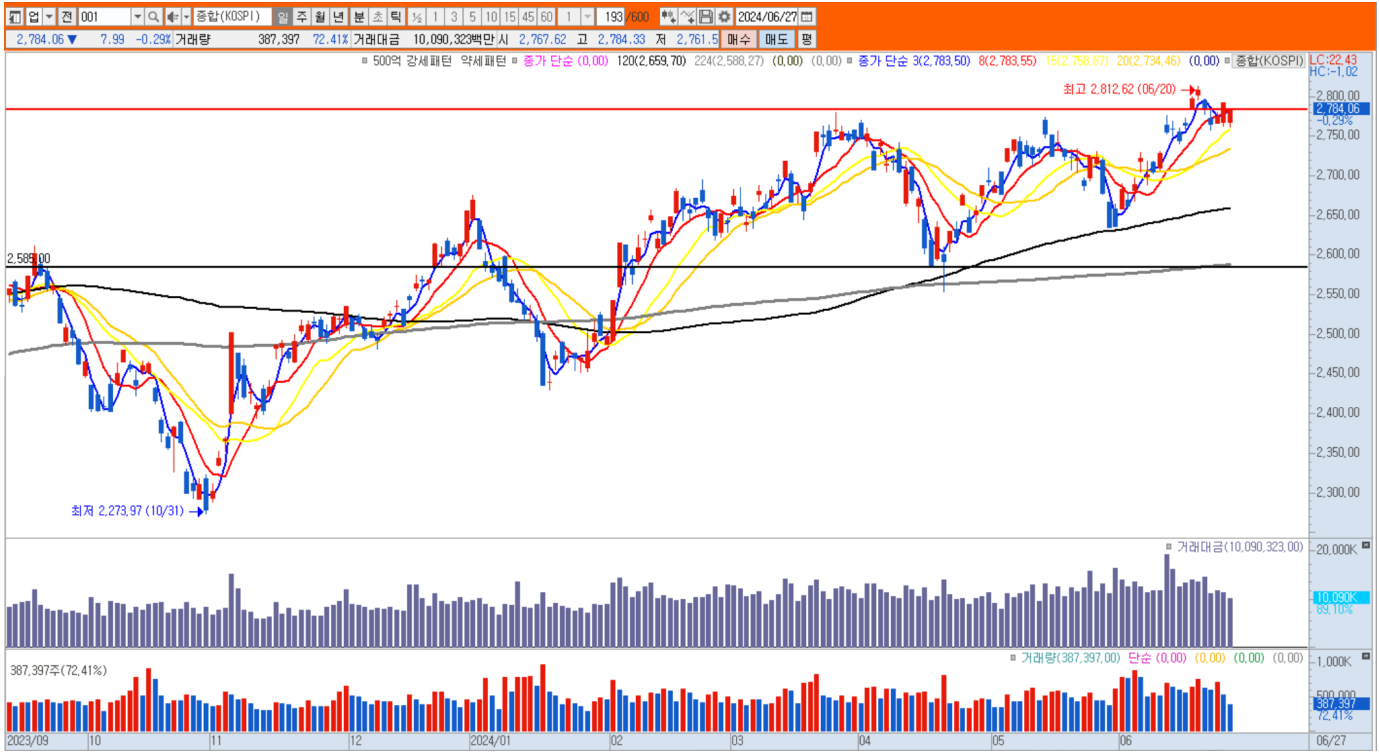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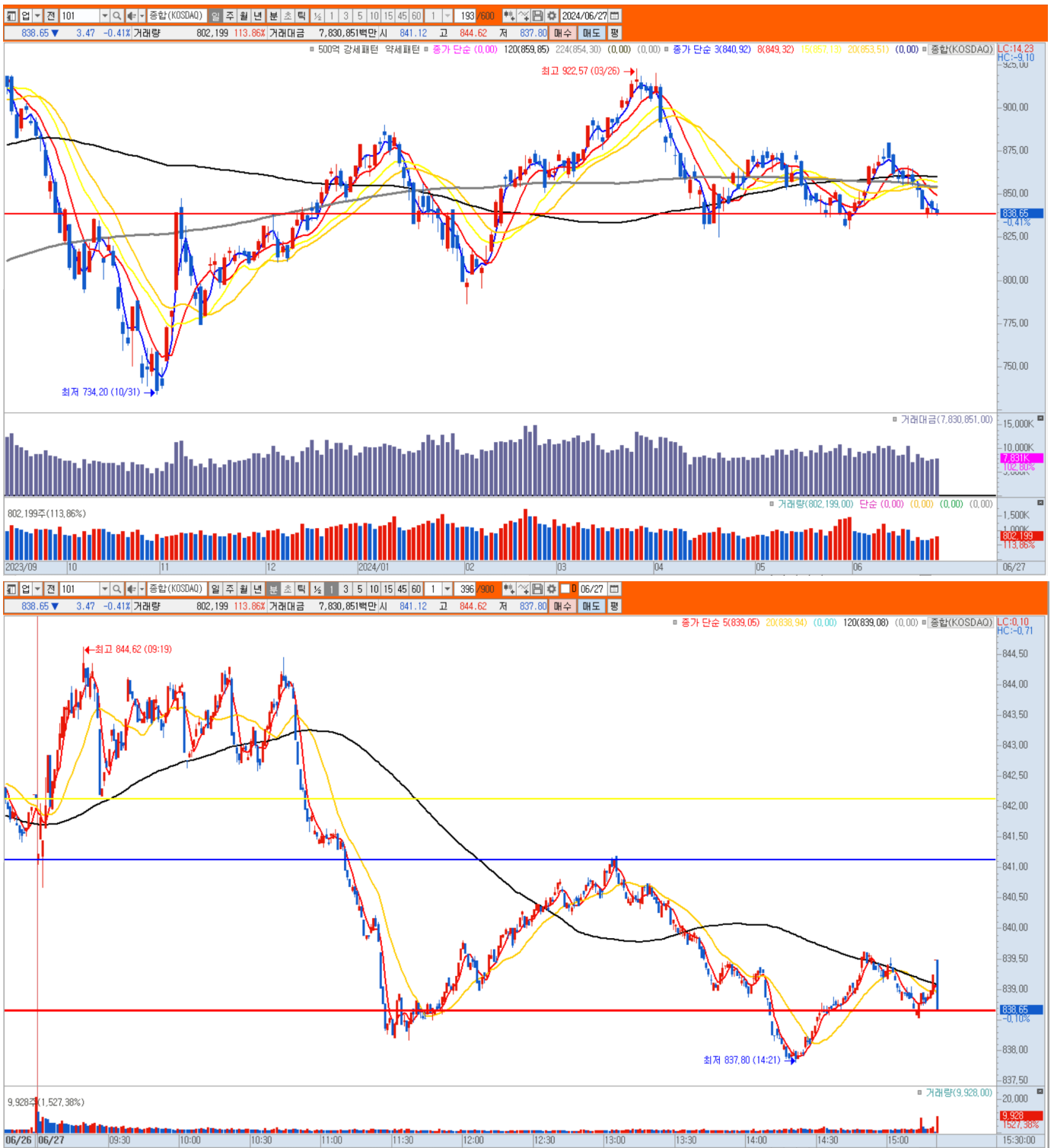
당일 새벽 제공된 'Signal Report'에서 시장에 강하게 부각된 요소를 복습하는 콘텐츠입니다. 매일 장 마감 후 저녁에 제공됩니다.

2024년 06월 27일 (목) - Signal evening

▶ 코스피 지수: 2784.06 (-0.29%)



▶ 코스닥 지수: 838.65 (-0.41%)



[06월 27일 (목)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 개별주 >

● 하이젠알앤엠 (+116.57%)(47929K)

[특징주] 코스닥 신규상장 하이젠알앤엠, 장 초반 160%대 강세
(24.06.12)하이젠알앤엠, IPO 도전... '액추에이터' 승부수

하이젠알앤엠은 각 부품에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 부품사들과 달리, 협동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등에 적용되는 42종류의 맞춤형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하이젠알앤엠의 액추에이터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로봇 팔을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역구동성(Backdrivability)과 로봇의 지연속도(Latency)를 줄여 응답 속도를 높인 분산제어 기능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젠알앤엠은 1963년 LG전자 모터사업부로 출범해 약 60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다. 하이젠알앤엠은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과 함께 국내 범용 모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총 39건의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최초로 IE4급 산업용 전동기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웨어러블 로봇에 적합한 박형 액추에이터 조립체 특허를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는 웨어러블 로봇용 고평크비 50Nm·kg급 저전압 액추에이터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

●아스트 (+29.91%)(15706K)

"보잉 부품공급사와 1조 규모 계약 진행"...아스트, 상한가

아스트는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와 1조1785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1685억원)의 7배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내년 초부터 2028년 말까지다. 계약에 따라 아스트는 보잉 737 여객기에 탑재되는 벌크헤드(칸막이 구조물) 등을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에 납품한다. 회사 측은 "납품이행률 미달 등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재된 계약금액과 실제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가레인 (+24.02%)(20811K)

기가레인, '세계 유일' 나노임프린트 토탈솔루션 라인업 확보

동사는 2018년 LED용 임프린터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장비의 고도화 및 자동화에 중점을 두어 2021년 풀 오토(Full auto) 임프린터의 상용화와 함께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양산 장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2년부터는 대면적 전자동화 임프린터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12인치급 대면적 전자동 임프린터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가레인이 자체 개발한 핵심 재료 기술과 장비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고객사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선도 디스플레이 기업과 활발히 제품 개발을 진행 및 임프린트 공정의 채택을 확장 중이다.

●비투엔 (+22.59%)(5125K)

(24.06.15)[뉴스핌 라씨로] 비투엔, 반려동물 시장 진출 본격화..."소변진단키트 개발 중, 내달 출시"

(24.05.28)쌍방울그룹 계열사, 비투엔 품었다

엑스트윈스1호조합은 주당 1236원에 970만8748주를 취득해 비투엔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비투엔은 사실상 쌍방울그룹의 품에 안기게 됐다. 쌍방울그룹은 쌍방울을 중심으로 쌍방울→비비안→디모아→아이오케이→제이준코스메틱→광림→쌍방울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있다. 다만 쌍방울그룹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부침을 겪은 바 있다. 광림과 쌍방울이 거래 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상장사들도 주가 폭락 등 이슈로 발목이 잡혔다. 여전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비투엔은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과 기타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당초 100억원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납입 직전 자금 조달의 목적을 기타자금으로 변경하며 활용의 폭을 넓혔다.

●효성화학 (+10.07%)(539K)

효성화학 특수가스 매각가 1.5조 안팎에서 결정될 듯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된 9개사 가운데 스틱인베스트먼트와 IMM PE 두 곳을 추려 매각가 등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우협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적어낸 가격은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웨이버스 (+9.71%)(31095K)

[특징주]웨이버스, 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기반 CCS 적극 활용...공동 사업 추진 부각↑

한국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 임건목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석유개발사업 기반을 활용해 CCS와 수소, 암모니아 등 저탄소 신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소식에 석유공사와 CCS 관련 공동 특허를 보유한 웨이버스에 관심이 쏠린다. 웨이버스는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96692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를 위한 탄성파 탐사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을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특허 보유하고 있다.

●웹케이 (+7.82%)(1620K)

[특징주]웹케이, "삼성전자도 반했다" 삼성 포스코 전계열사로 확대...마드라스체크 DS 협업툴 플로우 美. 日도 진출

한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22년 12월부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프로젝트 업무에 마드라스체크의 토종 협업툴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올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도 업무에 플로우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도 내년까지 전 계열사에 플로우를 도입해 업무관리를 하기로 했다.마드라스체크는 웹케이그룹의 1호 사내벤처다. 2009년 웹케이그룹에 입사한 이학준 마드라스체크 대표가 2015년 11월 창업했다.

●풍원정밀 (+7.59%)(3767K)

[특징주]풍원정밀, FMM 양산자금 마련...전세계 독점시장 흔들 다크호스 기대

풍원정밀은 최근 전환사채(CB)를 발행해 200억원을 조달했다. AOA-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와 삼성벤처투자(SVIC) 5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투자했다.풍원정밀은 6세대 OLE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메탈마스크(FMM)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MM은 적(R)녹(G)청(B) OLED 증착에 사용하는 금속 마스크다. 현재 전 세계 OLED FMM 시장은 일본 다이니폰프린팅(DNP)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풍원정밀이 FM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개발비를 지원했다.풍원정밀이 FMM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면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로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풍원정밀은 2027년 BOE, 2028년 CSOT에 6세대 OLED FMM을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이크머티리얼즈 (+4.13%)(693K)

그로스리서치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레이크머티리얼즈 · 씨아이에스 주목"

그로스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트리메틸알루미늄(TMA) 제조업체로, 2020년부터 자회사 레이테크놀로지를 설립하여 황화물계 소재를 연구개발 해왔다"라며 "2023년 말에 연간 약 120톤 생산 규모의 황화리튬 양산 설비를 완공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분석했다.

●에코앤드림 (+2.23%)(529K)

에코앤드림 "94억 규모 하이니켈 NCM 전구체 공급 주문"

에코앤드림은 고객사로부터 하이니켈 NCM 전구체 공급주문(PO)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에코앤드림은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를 쌓아 실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PO를 합산하면 266억원 규모이다.에코앤드림은 고객사의 강력한 수요에 발맞춰 전구체를 생산 중이다. 연간 5000톤 CAPA의 청주공장은 램프업(Ramp up) 막바지 단계에 도달해 90%가 넘는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2분기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안정화된 청주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에코앤드림 김민용 대표는 "북미향 전기차 제품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IRA로 인해 당장 2025년부터 전구체의 탈중국화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 BIO >

●펩트론 (+22.53%)(3840K)

[특징주] 펩트론,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24.05.14)신한證 "펩트론, 지속형 비만치료제 글로벌텍 기술이전 유효..여전히 저평가 국면"

염민용 연구원은 "동사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회사들과 MTA(물질이전계약)를 체결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지난해 확인 된 바 있다"라며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술이전이 임박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연되며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해 관심돌 국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도 최대한 빠른시간 내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해야 한다"라며 "특히 주 1회에서 월 1회 또는 2~3개월내 1회도 가능한 비만기술을 지녔기 때문에 기술이전 유효감이 높다"라고 부연했다. "만약 1개월 이상의 지속형기술이 개발된다면 공급 문제를 해결할 기술인 것은 확실하다"라며 "기술이전 여부도 중요하나 기술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 측면에서 뚜렷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옵투스제약 (+18.59%)(11853K)

[단독]옵투스제약, 앨러간 CMO 계약 유력...대규모 점안제 공장 증설 배경

업계에 따르면, 앨러간이 현재 유럽의 한 CMO에서 생산 중인 노안성질환 점안제를 옵투스제약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유력하다.앞서 옵투스제약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860억원 규모의 공장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옵투스제약은 전체 매출액의 99.2%를 점안제에서 올리고 있다.옵투스제약은 이번 증설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 생산 능력을 77% 늘릴 계획이다. 옵투스제약의 현재 일회용 점안제 생산능력은 4억 7000만관이다.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은 8억 3000만관까지 늘어난다. 현재 옵투스제약의 오송공장은 티어린피 점안액(건성안치료제), 하메론점안액(삼천당제약, 건성안치료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이번 일회용 점안제 공장 증설 중심엔 앨러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제약업계 고위관계자는 "앨러간의 노안성질환 점안제 위탁생산을 옵투스제약에게 맡기는 건 99.99% 확실하다"며 "다만, 현재로선 유럽 CMO 물량을 모두 넘겨줄 지(밴더 전환), 일부만 넘겨줄 지(2차 밴더)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앤디파마텍 (+10.89%)(1255K)

디앤디파마텍 美 자회사 'Valted Seq', 엔비디아 인셉션 멤버로 선정

디앤디파마텍의 미국 자회사인 Valted Seq가 엔비디아 인셉션(NVIDIA Inception) 프로그램의 멤버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Valted Seq는 복수의 단일 세포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단일세포 시퀀싱(single cell sequencing) 기술인 HiF-Seq 플랫폼 기술과 GPU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개발한 바이오텍으로, 다양한 뇌질환 치료용 신규 타겟 발굴을 위한 단일 세포 유전자 빅데이터를 구축 중이다.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스타트

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멤버들에게는 기술적 지원, 시장 진출 기회, 네트워킹 및 리소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노믹트리 (+10.18%)(1247K)**

(24.04.15)지노믹트리, '건강보험 등록+미국 진출 본격화' 수혜-하나증권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지노믹트리에 풍부한 주가 모멘텀이 상존해 있는 시기"라며 "얼리텍 C(대장암 조기진단)의 국내 신의료기술 및 건강보험 등재, 중국 대규모 확증임상 완료, 얼리텍B(방광암 조기진단)의 미국 시장 본격 침투, 국내 식약처 허가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연구원은 "얼리텍C의 경쟁 제품을 판매하는 이그젝트 사이언스(Exact Sciences)의 현재 시가총액은 18조원을 상회한다"며 "얼리텍B의 경쟁사 퍼시픽 엣지(Pacific Edge)는 미국 LDT(실험실개발검사) 서비스 출시 당시 시가총액 1조원을 상회했는데, 현재는 서비스를 철회한 상황으로 동사의 집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8.00%)(2173K)**

SK바이오사이언스, 3390억에 독일 백신 CDMO 기업 인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클로케 그룹과 CMO(위탁생산) 및 CDMO(위탁개발생산) 전문 회사 'IDT 바이오로지카'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해당 기업은 총 656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 해외 시장을 겨냥해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IDT 바이오로지카는 독일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형 바이오 기업이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 공정·분석법 개발과 함께 임상부터 상업 단계까지 백신·바이오 전 영역의 원액 및 완제를 생산하고 있다. 직원 규모는 1800여명에 달한다.

●**에스바이오메딕스 (+7.97%)(864K)**

에스바이오메딕스 "임상 중간 결과 바이엘 자회사 파킨슨 치료제보다 운동기능 개선 효과 우수"

에스바이오메딕스의 파킨슨병 치료제(TED-A9)가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통해 경쟁업체인 독일 바이엘의 자회사 블루락테라퓨틱스의 'BRT-DA01(뱀다네프로셀)'보다 운동기능 개선 효과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발표된 중간결과는 지난해 5월 투여된 저용량(315만 개) 투여 대상자 3명에 대한 1년 추적관찰 결과다. 이후 작년 8월 투여된 고용량(630만 개) 투여 대상자 3명에 대한 1년 추적관찰 결과는 9~10월경 발표가 예상된다.

●**아미코젠 (-17.94%)(9289K)**

삼성도 외면한 아미코젠, 1300억 공장 애물단지 전략 우려

아미코젠, 삼성 외면 사실무근...국내 유일 배지공장 삼성과 활발히 협력

< **에너지** >

●**세명전기 (+23.59%)(36582K) / 제룡산업 (+1.54%)(7984K)**

세명전기, 국가 핵심 전력인프라 HVDC 송전선로 개발 완료...수주 성공 제작 돌입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명전기는 500kV HVDC용 금구류 제품 개발을 끝내고 수주를 받아 제작에 돌입했다.이 제품은 개발 및 시제품 출시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개발 전과정은 마무리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전력의 승인 역시 품목 등록만 앞두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출시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발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라며 "일부 품목과 관련해서는 수주

도 받아서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세명전기가 개발한 500kV HVDC 송전선로 금구류는 한전이 추진하는 국가 핵심 전력인프라 프로젝트로 서울-수도권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230km 송전사업 규격이다.세명전기의 이번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반도체 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필요한 110여km 송전선로 구축에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명전기는 송·배·변전선용 금구류의 개발,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맡고 있다. 일본에서 100% 수입하던 금구류를 국내 최초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전선 관련주: 가온전선 (+15.04%)(2581K) / KBI메탈 (+13.92%)(37264K) / 대한전선 (+5.13%)(11424K) / 대원전선 (+1.99%)(41335K) / LS ELECTRIC (+7.18%)(994K)

●변압기 관련주: 제룡전기 (+13.34%)(2711K) / HD현대일렉트릭 (+5.80%)(475K) / 일진전기 (+5.50%)(2156K)

(24.06.25)[단독]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통큰 지원 나선다

(24.06.24)태양광발전 10년간 14배 급증했는데 송전망은 게걸음... '전력망 특별법' 시급

하나증권 "미국 대선 첫 TV토론 기대감,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주목"

원자력이나 전력망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전력 공급량을 메운다는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나 전력망 투자에는 모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씨에스윈드 (+8.45%)(783K)

전북자치도-씨에스윈드-군산시, 해상풍력 산업화 기반 조성 업무협약

하나증권 "미국 대선 첫 TV토론 기대감,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주목"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첫 TV토론을 벌인다.두 대선 후보 지지율은 현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관심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두 후보의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됐다.하나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규제 완화,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투자 지속 등 전기차 관련 정책에서 크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원자력이나 전력망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전력 공급량을 메운다는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나 전력망 투자에는 모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K - 미용 / 식품 >

●한국콜마 (+6.73%)(111K) / 한국화장품제조 (+11.72%)(389K) / 브이티 (+5.87%)(1667K) / 코스메카코리아 (+5.84%)(288K)

한국콜마, 아마존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 K-화장품 전파

[특징주]화장품株 줄줄이 동반상승...역대급 수출.아마존 '지원사격' 부각

이날 알려진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금액은 4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0% 늘었다. 현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인 2021년의 92억2000만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특히 수출국의 다변화가 주목할 부분이다. 부동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10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줄었으나 미국은 7억2000만달러로 67.8% 상승했다.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 등도 골고루 성장 중이다.

● **씨앤씨인터내셔널 (+9.47%)(237K)**

(24.06.26)씨앤씨인터, K-뷰티 르네상스 이끈다...목표가 26.1%↑-하나

박 연구원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K뷰티의 트렌디한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점유율을 수성하기 위해 글로벌 인디.럭셔리 브랜드들 또한 우리나라 ODM사를 찾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씨앤씨인터내셔널이 이러한 K뷰티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요소를 모두 모멘텀으로 보유한 회사"라고 평가했다.그는 "동사는 특히 색조 ODM 후발주자로 시작했으나 '제형·발림성·제품' 등 여러 변형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씨앤씨인터만의 색을 만들고자 했으며, 노력과 경험, 노하우가 쌓이며 국내 대형사·국내 외 인디.글로벌 고객사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현재 해외 고객사와의 프로젝트를 300여개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북미·유럽 뿐 아니라 아세안·중동·남미·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고객사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2024.06.27.(목) 한 장으로 보는 이브닝**

“코스피·코스닥 혼조세..연이은 개별주 장세”

▼ 코스피 2,784.06 (-0.29%)

▼ 코스닥 838.65 (-0.41%)

개별주

- 하이젠알앤엠 (+116.57%)
- 아스트 (+29.91%) ▲
- 기가레인 (+24.02%)
- 비투엔 (+22.59%)
- 효성화학 (+10.07%)
- 웨이버스 (+9.71%)
- 웹케시 (+7.82%)
- 풍원정밀 (+7.59%)
- 레이크머티리얼즈 (+4.13%)
- 에코앤드림 (+2.23%)

BIO

- 펍트론 (+22.53%)
- 옵투스제약 (+18.59%)
- 디앤디파마텍 (+10.89%)
- 지노믹트리 (+10.18%)
- SK바이오사이언스 (+8.00%)
- 에스바이오메딕스 (+7.97%)
- 아미코젠 (-17.94%)

K-미용/식품

- 한국콜마 (+6.73%)
- 한국화장품제조 (+11.72%)
- 브이티 (+5.87%)
- 코스메카코리아 (+5.84%)
- 씨앤씨인터내셔널 (+9.47%)

에너지

- 세명전기 (+23.59%)
- 제룡산업 (+1.54%)
- 가온전선 (+15.04%)
- KBI메탈 (+13.92%)
- 대한전선 (+5.13%)
- 대원전선 (+1.99%)
- LS ELECTRIC (+7.18%)
- 제룡전기 (+13.34%)
- HD현대일렉트릭 (+5.80%)
- 일진전기 (+5.50%)
- 씨에스윈드 (+8.45%)